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 인생은 타이밍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불루라고 불리는 코로나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한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대응행으로 몸도 마음도 모두 움츠러들고, 가능하면 서로를 위해서 집에 있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는 방역지침도 있지만 국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협력으로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020년 10월 10일 14시 현재 218개 국가에서 확진자 3,677만 명, 사망자 106만명이고 1위 미국은 확진자 760만명, 21만명(사망률 2.8%), 2위 인도는 확진자 690만명, 사망자 10만명(1.5%), 3위 브라질은 확진자 505만명, 사망자 14만 9천명(3.0%), 4위 러시아는 확진자 126만명, 사망자 2만2천명(1.7%)이다.

한국은 확진자 24,548명, 사망자 430명(1.8%)이다.

코로나 현황은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 음식점이나 노래방,

게임, 카페, 구멍가게, 점포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은 생계와 생존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이나, 잘 사나 못 사나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이나를 놓고도 논의는 분분(紛紛)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현실에서 집행하려면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는 선별적 지원에 동의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문학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If by life you were deceived)가 생각났다.

러시아 국민문학의 아버지, 국민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Aleksandr Pushkin, 1799~1837)은 제정 러시아 시대 가혹한 농노제(農奴制)로 핍박당했던 민중들을 위로하는 시에서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지나간 것들은 그리워진다'(On a gloomy day, submit. Trust that fair day will come. That which

passes will be dear)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It shall also come to pass)는 유대인의 성경 주석과 연관되기도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은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싫어한다.

당시 러시아제국의 황제는 전체 정치(專制政治)와 농민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는 푸시킨을 미워해서 시베리아로, 다시 북극 아래 백해(白海)의 솔로베츠키 수도원으로 유배시켰다.

그후 가난과 엄격한 검열에 시달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겨우 37세의 나이로 프랑스인 귀족 조르주 단테스(푸시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는 러시아 귀족들의 날조된 소문의 대상과 결투를 벌이다가 총상으로 인해 비운(悲運)의 죽음을 당했다.

세상에 실망하고 상처 받고 힘들어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민초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런데 추석 귀성이나 여행 자제를 권고했던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 이일형 연세대 명예교수가 10월 3일 요트를 사라 미국

으로 출국했다. 코로나가 없는 시기(時期)에 출국했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시기, 타이밍(Timing)이다.

똑 같은 말이나 똑 같은 행동도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태도로 했더라도 때(時)에 맞지 않으면 안한 것만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사람, 모자란 사람, 심지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맛이 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때에 맞지 않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로 일의 성과가 좌우되고 운명이 바뀌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갑자기 돈을 번 졸부(悭富)들이나 구름 위에서 사는 상류층들은 날마다 맨땅에 헤딩하며 살아가는 민초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다.

그들의 일상 의식(意識)에서 그냥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되면 놀라고 위화감이 들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푸시킨의 명시 '삶이 그대를 속이지라도'(1825년)를 함께 감상해보자. 삶이 그대를 속이지라도/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모든 것 허약없이 사라지고/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워지나니.

## 사 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환영

정부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23일 이후 거의 두달만에 하향 조정 되었다. 자영업자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을 듯 싶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규모를 기준으로 50명 이내일 경우 1단계, 50~100명일 때 2단계, 100명 이상일 때 3단계다.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종교시설 같은 중위험 시설은 강제로 적용되는 수칙이 없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도 할 수 없다.

그간 주요 골목상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벼랑끝에 내몰렸었다. 하반기 순익은 작년보다 42%나 하락했다. 사장님 5명 중에 3명은 폐업을 고려해봤다고 했고 이중 10.9%는 실제로 폐업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해야 한다.

아직은 지역 곳곳에 '조용한 전파'가 위험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만큼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켜면 한다.

완전한 가을날씨를 맞아 단풍 경관을 가는 등의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것 보다 가족단위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을 시작하자.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동학대 이젠 그만...관심과 사랑으로

아동학대로 인해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이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발생과 신고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으로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대면 지원이나 관리가 사실상 중단돼 아동학대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와 아이가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이나 실직 등을 이유로 감정적, 신체적,

복합적 학대 등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등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미래이다.

무관심과 학대로 인해서 신체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환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일교율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광명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